

2026년 5월 말레이시아 관광시장 동향

'26. 5. 28.(목) / 쿠알라룸푸르지사

○ 말레이시아항공, 7월 2일부터 카타르 도하 재취항 예정

- 말레이시아항공은 카타르의 영공 재개방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이후 중단되었던 쿠알라룸푸르-도하 노선을 7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
- 과거 하루 3회 운항하던 노선으로, 일 1회 운영 예정이며, 나머지 2회는 10월 24일까지는 계속 중단된 채로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 하게 될 것

○ 관광부, 정부의 비용절감 기조에 부응하되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목표 유지

-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최근 중동 갈등으로 인한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의 지출을 삭감하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관광부는 해당 방침을 준수하면서도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등 주요 정책은 계획대로 유지한다고 발표
- 이를 위해 관광부는 보유 자원을 최적화하고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등 선별적이고 절제된 지출관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방문의해 사업은 지속 진행하면서 국민, 업계 관계자,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
- 관광부장관은 중동 갈등으로 인해 중동 관광객 입국이 줄어들었지만, 아시아와 유럽국가 관광객이 증가했다며 방문의해 사업 목표에는 영향이 없다고 발표
- 대신 각종 관광 관련 사업 추진 시 공적 자금의 낭비가 없게 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비용 절감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임

○ 중소기업협회, 논란이 된 워터페스티벌이 중소기업 운영에 도움이 됨을 강조

- 중소기업협회는 방문의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4.30.부터 5.2.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번화가인 부킷 빈탕에서 열린 워터페스티벌(Rain Rave Water Music Festival in Bukit Bintang)이 중소기업체에 의미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힘
- 이번 행사는 관광부 지원 아래 열려 관광객 증가 및 관광 소비 확대를 이끌었고 소매, 식음료, 숙박, 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였음
- 협회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사가 국

내외 관광객을 모으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데에도 기여한다면서 이러한 효과 높은 관광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확대, 홍보할 것을 촉구

- 이는 해당 축제가 태국의 송크란 축제의 모방이라거나, 과도한 노출로 종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수적인 비판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인바운드관광협회는 이 축제가 3일간 18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2억링깃의 관광 지출을 이끌었다고 발표하며 이 축제를 정기적인 이벤트로 발전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

○ 공항 및 푸트라자야* 근무자를 위한 트래블패스 시범 출시

* 쿠알라룸푸르와 국제공항 사이에 조성된 행정수도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KLIA) 및 푸트라자야, 사이버자야 부근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위한 철도 월 정기권이 3개월 간 시범 운영되고 반응에 따라 연장 예정임
- 명칭은 MyKLIA Monthly Travel Card(MTC) 및 MyPutrajaya MTC로, 공항 근무자 및 푸트라자야 근무 공무원이 주요 타깃
- 이는 중동 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것이며, 이들이 받는 할인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보조하지 않고 운영사가 감내하도록 함
- 공항 근무자는 철도 운영사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운영사는 이를 회사 측이 제출한 직원 정보와 대조하여 구매 자격을 부여함.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신분증 인증 절차를 거쳐 판매
- 말레이시아 국민에게만 7월 1일까지 판매하며 31일 단위로 갱신 가능

○ 여행업협회, 관광 부문 전기차 도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필요 강조

- 여행업협회(MATTA, Malaysian Association of Tour and Travel Agents)는 관광 부문에서 전기차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단순한 교통 문제로서가 아니라 인프라, 에너지, 금융, 관광 정책을 결합한 생태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
- 즉 이를 단순히 업체의 차량 교체로 볼 것이 아니라 관광업자들이 전기차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 저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범 부처, 기관, 업계가 함께 만들지 않으면 단편적인 노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노르웨이, 중국, 그 외 여러 유럽 국가들을 제시하였는데, 이

들은 모두 에너지, 교통, 관광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을 전개했다는 것

- 또한 전기차 전환에 나서는 여행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전기차를 도입하여 모범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

○ 에어아시아, 에어버스 A220-300 기종 150대 주문, 첫 인도는 2028년 전망

- 에어아시아 공동창업주 토니 페르난데스는 캐나다의 에어버스를 방문, 19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150대 주문 계약을 체결함
- 첫 기체 인도는 2028년으로, 추가로 에어버스가 해당 기종의 대형 버전*을 만든다면 150대를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됨

* A220-500 개발 계획이 있으며 편당 좌석수는 180석 가량. A220 좌석수는 통상 110-130석. 이번에 에어아시아가 주문한 기종의 좌석수는 160석으로 예상

- 업계에서는 싱가포르의 LCC 스쿠트 항공이 경쟁기종인 Embracer E190-E2를 활용해 꼬라비, 환탄, 말라카 등의 노선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에어아시아를 포함한 LCC들이 기체가 작고 연비가 높은 기종을 근거리 지역 노선에 투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애널리스트들은 에어아시아 역시 해당 기종을 활용해 노선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항공기 운영, 기존 노선 증편, 그리고 고성장 소규모 시장 개척이 가능해진다고 봄
- 한편 에어아시아 창업주 토니 페르난데스는 지금의 항공업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 포착을 위해 새로운 항공사 론칭을 1~2개월 내에 발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항공기 구매와 연계하여 일부 항공기를 새로운 항공사로 이동시킬 가능성도 대두됨

○ 쿠알라룸푸르 페스티벌, 연례 행사화 발표

- 5월 개최되는 쿠알라룸푸르 페스티벌이 2027년까지 연장된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연례행사가 될 것이라고 총리실 장관이 발표
- 이는 쿠알라룸푸르를 일하고 출퇴근하는 도시에서 공공 공간이 문화, 창의성, 커뮤니티 활동으로 활력을 띠는 도시로 탈바꿈 시키고, 특히 쇼핑몰을 넘어서 거리, 문화유산 건물, 공공 공간 역시 생동감을 띄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
- 올해 축제는 5월 6일부터 31일까지 26개 장소에서 8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 말레이시아항공, 주요시장 대상 추가요금 없이 무제한 변경 가능한 티켓 판매

- 말레이시아항공은 고객들이 안정성과 가성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점을 감안, 주요 시장에서 'Now Boarding' 캠페인을 개시함
 - 캠페인 핵심은 유연한 예약에 있으며, Flex 요금제 선택 시 추가 수수료 없이 항공편 변경을 무제한으로 허용해 일정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가족 여행객을 위해 어린이 요금 할인은 물론, 기내 활동 키트(activity packs)도 제공
 - 공식 웹사이트 혹은 앱으로 예약 시 회원 대상 5% 할인, 메이뱅크 고객 15% 할인, 유니온페이 결제 시 최대 150링깃 캐시백 등의 혜택 제공
- **슬랑오르주, 석가탄신일 맞아 석가상 666개 제작 및 관광객 유치 행사 개최**
- 슬랑오르주는 올해 석가탄신일을 맞아 석가상 666개(행사일자인 2026.6.6.에서 착안)를 제작, 설치해 국가 기록을 갱신하고, 다문화의 화합을 증진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
 - 전통적인 불상 목욕시키기 의식 외에도 승려들의 독경, 경전 필사 등의 종교행사가 있고, 목판 인쇄, 보리수잎 공예, 불교 명언 캔버스백 만들기 등 비종교적인 행사 역시 개최되는데 이는 2026년 슬랑오르 방문의해와 연계하여 문화 관광을 활성화 하려는 의도
- **코타키나발루, 중동 갈등으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직항 항공편 연쇄 감편 발생**
- 중동 갈등으로 인한 고유가로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 코타키나발루의 직항 항공편 감편이 잇다르고 있음
 - 대표적으로 국제선은 에어아시아의 싱가포르(5.13.~11.30. 중단), 자카르타(4.16.~5.21. 중단), 호치민(7.1.부터 중단), 바틱에어의 서울(4.28.부터 중단) 노선이 영향을 받았고,
 - 국내선은 6.8.~6.30. 에어아시아의 시부, 빈톨루 노선이 운항을 중단함
 - 사바주는 현재까지는 올해 관광객 목표치인 400만명 달성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항공편 사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잠정 집계에 따르면 3월까지 사바주 관광객 수는 932,970명으로 그 중 국내 관광객이 537,317명, 해외 관광객이 395,653명이었음
- **페낭 의료관광객, 2025년에 전년 대비 약 26% 성장**
- 페낭의료관광센터가 집계한 16개 민간병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의 외국인 환자

수는 2024년의 418,608명에서 2025년 527,176명으로 증가하였고, 의료관광 수입은 8억 9,800만링깃에서 11억4,000만링깃으로 증가하였음

- 페낭주는 이를 페낭이 말레이시아의 주요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하였다는 의미로 평가하면서, 에어아시아와 협력하여 Malaysia Year of Medical Tourism 2026과 연계한 Boarding Pass privileges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발표
- 2025.10.1.~2026.12.31. 외국인 환자가 항공권과 여권을 제시하면 건강검진 패키지를 15%를 할인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자국의 통화로 병원비를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를 강화

○ 말레이시아 1분기 외래관광객 5.4% 증가해 1,064만명 기록

- 관광부는 말레이시아의 2026년 1분기 외래관광객이 1,064만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분기 901만명보다 많고 2년 연속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이라고 발표
- 중동 지역 갈등 등으로 인해 중동(27.2%), 남아시아(6.7%), 북아프리카(8.4%)는 관광객이 감소했으나, 동아시아와 아세안 위주로 성장했고, 특히 중국 관광객이 28만명 이상 증가해 전년 대비 25.2% 성장함
- 이러한 성장의 핵심 요인은 국제 항공 연결성 확대, 특히 직항 노선 확장이었는데, 1분기동안 20개 신규 노선 개설, 12개 항공사가 주 95편 운항 추가, 5개 항공사가 중국, 홍콩을 전세기로 운항한 결과임

○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나스, 지속가능항공연료(SAF) 공급

- 페트로나스는 말레이시아 최초로 혼합형 지속가능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자체 시설에서 생산해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 공급, 항공 산업의 저탄소 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 해당 연료는 말레이시아항공의 쿠알라룸푸르-런던 노선에 활용될 계획이며, 이로써 페트로나스는 글로벌 SAF의 조달, 국제 인증, 현지 혼합, 유통까지 모두 가능함을 입증

○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동남아 아세안 국가에 기회가 된다는 분석 나와

- 최근 열린 Xiaohongshu Business x Singapore Outbound Tourism Forum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관광 수요가 점점 전통적인 '목적지 중심 여행'에서 벗어나,

- 라이프스타일 관심사, 문화 체험, 웰니스 활동, 스포츠 이벤트, 현지 몰입형 경험(local immersion)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
- Xiaohongshu의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월간 해외여행 활성 사용자는 1억3000만 명으로, 이 중 90% 이상이 적극적으로 여행 관련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단순히 목적지 위주가 아닌, 개인의 관심사와 감정적 경험에 맞는 여행을 추구함
- Xiaohongshu는 특히 최근 확산 중인 ‘블라인드 박스형 여행(blind box-style travel)’ 현상에 주목, 이는 감정적 공감(emotional resonance),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 현지 라이프스타일 미학에 대한 몰입을 원하는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며, 이는 강력한 항공 연결성, 다양한 관광 자산, 고속 성장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갖춘 말레이시아 관광 산업에 기회요인이 된다고 봄
- 한편 Xiaohongshu의 소비자 인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급성장하는 고객층은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젊은 도시 소비자, 19~25세 디지털 네이티브 여행객,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중시하는 중산층, 자녀 친화적·교육형 여행을 찾는 신세대 부모층

○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산업, SST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유지 및 2026년에도 지속 성장 전망

- 아세안의 대표적인 의료관광 허브로 자리잡은 말레이시아는 태국, 싱가포르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의료비 상승과 글로벌 불확실성 확산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은 올해도 지속 성장할 전망
-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치료 비용, 국제 인증 병원, 영어 사용 의료진, 무슬림 친화 서비스를 무기로 의료관광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로 2025년에는 의료관광 수입이 전년도 27억2000만 링깃에서 33억5000만 링깃으로 23.2% 증가, 환자 수 역시 160만 명에서 185만 명으로 약 15.6% 증가
- 올해 중동 갈등으로 인해 두바이 등 중동으로의 의료 관광이 불안정해지면서, 아시아에서 대체 목적지를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MHTC)는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의료 목적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최대 환자 공급국은 인도네시아이고, 인도 환자도 꾸준히 증가세이나, 인도네시아 루피 약세의 약세가 향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
- 한편 MHTC는 Malaysia Year of Medical Tourism 2026 정책이 국제 협력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통해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6년 전략의 핵심이 단순 환자 수 증가가 아니라 고부가 치료 확대, 장기

체류 유도, 사전 상담~사후 관리까지 통합 경험 강화라고 설명

- 또한 재무부는 6%의 세금(SST, Sales and Service Tax) 부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여전히 경쟁력 있는 가격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외 환자 수요도 전국 주요 의료 허브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 버자야에어, 세계 최초로 좌석식 비즈니스석 ATR72-600 도입

- 버자야에어가 전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구성한 항공기를 도입하고 프리미엄 지역노선 및 전세기 시장 공략에 나섬
- 버자야측은 일반 항공사처럼 핵심 노선에서 대량 운항 경쟁을 할 생각이 없으며, 단순 항공사가 아닌 솔루션 제공자로서 분위기와 기내식까지 여행 경험의 일부가 되는 비즈니스 클래스 컨셉을 채택했다고 밝힘
- 독점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단 26석의 비즈니스 좌석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기체를 인도받아 5.22. 수방공항에서 르당아일랜드로의 운항을 시작하고, 다음주부터는 싱가포르와 르당을 연결하는 노선도 운항 예정
- 버자야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역 간 직항을 연결하면서, 르당과 랑카위 등에 있는 버자야그룹의 리조트와 연계한 프리미엄 관광 상품을 제공할 예정

○ 5월 마지막주 연휴 기간 말레이시아인 3만명 태국 방문 예상

- Thailand-Southeast Asia Halal Trade and Tourism Association은 5월 마지막주의 연휴 기간동안 약 3만명의 말레이시아인이 태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평균적인 지출액인 2만 바트씩 지출하면 총 지출액은 6억 바트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발표
-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연휴를 맞아 국경이 닿아 있는 태국 남부의 5개 주로 몰릴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인 관광지들의 호텔 예약률은 이미 90%에 달함

○ 말레이시아 방문의해와 연계, UOL 그룹 산하 호텔에서의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절감 사업 추진

- UOL Group 산하 호텔 네 곳이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캠페인에 맞춰 추진되는 친환경 노력의 일환으로 객실 내 정수 시스템을 도입, 1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을 줄이며 지속가능 관광 실천에 나선다고 발표

- 해당 호텔은 ParkRoyal Collection Kuala Lumpur, Pan Pacific Serviced Suites Kuala Lumpur, ParkRoyal A’Famosa Melaka Resort, ParkRoyal Langkawi Resort이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임과 동시에 생수 구매 비용 감소, 물류 비용 감소, 운영 효율 개선도 노리고 있음
 - 정수 시스템 개발사는 향후 5년간 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호텔 개발 분야에서 중앙 집중식 정수 시스템, 빗물 재활용 시스템 역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면서 이는 방문의해 캠페인과 관련해 앞으로 관광객들이 환경 친화적인 여행 경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 호텔 산업이 고급 서비스와 친환경 운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
- **올해 쿠알라룸푸르에 26개 콘서트 유치해 팬 50만명 방문 유도 추진**
- 쿠알라룸푸르는 아시아의 핵심 라이브 음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프로젝트 “KL Headline Season 2026” 사업을 론칭
 - 이는 행사 기업 Live Nation이 Tourism Malaysia(관광청), CelcomDigi(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6개 공연장에 25개 국제 콘서트를 개최하여 50만명의 관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계획된 라인업에는 브라이언 아담스, Treasure, Day6, BTS 등이 포함
 - 주최측은 오늘 날 콘서트는 강력한 관광 유인 요소이며 이 사업을 통해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말레이시아의 음식문화와 대표 관광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고, 이를 통해 호텔, 유통, 식음료 등 산업이 수혜를 보며 지역의 소상공인이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총리실은 이 사업은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를 고부가가치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

[자료 출처 : 현지 주요 언론 종합]

- 말레이시아항공, 7월 2일부터 카타르 도하 재취항 예정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4/1429735/malaysia-airlines-resume-doha-flights-july-2>
- 관광부, 정부의 비용절감 기조에 부응하되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목표 유지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5/1429981/visit-malaysia-2026-target-remains-intact-despite-drop-middle-east>
<https://www.nst.com.my/news/regional/2026/04/1429731/tourism-ministry-comply-spending-cuts-keep-visit-malaysia-2026-plan>
- 중소기업협회, 논란이 된 워터페스티벌이 중소기업 운영에 도움이 됨을 강조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5/1431367/water-festival-boosts-sme-activity-amid-tough-operating-climate>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5/1432211/rain-rave-drew-180000-generated-rm200mil-tourism-group>
- 공항 및 푸트라자야 근무자를 위한 트래블패스 시범 출시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6/05/05/new-travel-passes-target-airport-workers-civil-servants-in-putrajaya-cyberjaya-says-loke>
- 여행업협회, 관광 부문 전기차 도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필요 강조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6/05/05/unified-push-for-evs-in-tourism>
- 에어아시아, 에어버스 A220-300 기종 150대 주문, 첫 인도는 2028년 전망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5/1434825/airasia-xs-us19bil-airbus-order-signals-shift-budget-airline>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5/1433968/airasia-orders-150-airbus-a220-jets-eyes-larger-variant-option>
<https://theedgemalaysia.com/node/802667>
- 쿠알라룸푸르 페스티벌, 연례 행사화 발표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5/1434621/hannah-yeoh-kl-festival-become-annual-event>
- 말레이시아항공, 주요시장 대상 추가요금 없이 무제한 변경 가능한 티켓 판매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5/1436885/malaysia-airlines-maintains-otp-above-90pct-second-straight>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6/05/11/malaysia-airlines-maintains-focus-on-operational-consistency-and-greater-flexibility-for-travellers>
- 슬랑오르주, 석가탄신일 맞아 석가상 666개 제작 및 관광객 유치 행사 개최
<https://www.malaymail.com/news/life/2026/05/11/selangor-to-assemble-666-prince-siddhartha-statues-for-wesak-day-record-attempt-on-june-6/21957>
- 코타키나발루, 중동 갈등으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직항 항공편 연쇄 감편 발생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6/05/11/sabah-revises-tourism-strategy-after-airline-route-suspensions-affect-kota-kinabalu-connectivity/219530>
- 페낭 의료관광객, 2025년에 전년 대비 약 26% 성장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6/05/11/penang-medical-tourism-records-26-growth-in-2025>
- 말레이시아 1분기 외래관광객 5.4% 증가해 1,064만명 기록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5/1438706/malaysia-hits-1064-million-international-arrivals-q1-2026>
-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나스, 지속가능항공연료(SAF) 공급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5/1438727/petronas-delivers-malaysias-first-sustainable-aviation-fuel-klia>
-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동남아 아세안 국가에 기회가 된다는 분석 나와
<https://www.nst.com.my/business/economy/2026/05/1440220/interest-driven-travel-trends-open-new-opportunities-southeast>

-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산업, SST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유지 및 2026년에도 지속 성장 전망

<https://www.nst.com.my/business/economy/2026/05/1441929/malaysia-gain-more-ground-medical-tourism>

<https://www.nst.com.my/news/regional/2026/05/1442324/malaysias-medical-tourism-stays-strong-despite-sst-says-amir-hamzah>

- 버자야에어, 세계 최초로 전좌석 비즈니스석 ATR72-600 도입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5/1444226/berjaya-air-debuts-world-first-atr-business-cabin-watch>

- 5월 마지막주 연휴 기간 말레이시아인 3만명 태국 방문 예상

<https://www.nst.com.my/news/regional/2026/05/1447228/about-30000-malaysians-expected-visit-thailand-next-week>

- 말레이시아 방문의해와 연계, UOL 그룹 산하 호텔에서의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절감 사업 추진

<https://www.nst.com.my/business/esg/2026/05/1445974/hotels-under-uol-group-cut-over-one-million-plastic-bottles-ahead>

- 올해 쿠알라룸푸르에 26개 콘서트 유치해 팬 50만명 방문 유도 추진

<https://www.nst.com.my/lifestyle/groove/2026/05/1448294/showbiz-kl-headline-season-2026-ignites-capital-key-destination>